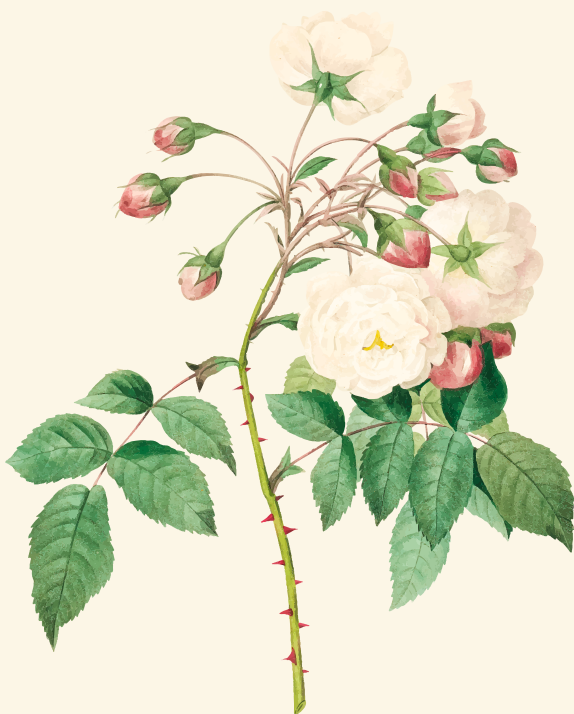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8. 19.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는 평화”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코러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1장 43~55절

다 같이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말씀 나눔 ... 미스바에 세운 돌기둥, 갈등을 넘어 평화로 인 도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갈등과 관계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야곱의 인생 역시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했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껄뻐하게 여긴 라반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무섭게 추격해 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살벌했던 갈등의 현장이 도리어 '화해와 평화의 언약'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장면은 "인간의 분노와 탐욕이 지배하는 현장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해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얽혀 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주권

본문 43~44절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추격해 와서도 야곱의 모든 소유가 원래 자기의 것이라며 끝까지 억지 주장과 탐욕을 부립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땀 흘려 얻은 대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라반이 갑자기 야곱에게 “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고 화해를 제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서슬 퍼런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마음이 착해져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감정과 복수심은 인간의 의지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개입만이 악인의 탐욕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나서서 피 흘려 싸우거나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둘째, 갈르엣과 미스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인생

본문 45~49절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부르는데,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곳을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망대’라는 뜻으로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신앙적 고백의 선언이었습니다.

돌기둥은 단순히 인간들의 영토 경계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자리에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초청한 영적 이정표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이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의를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미스바의 돌기둥’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나의 모든 행실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화해를 완성하는 예배와 교제

본문 50~54절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두 사람은 상호 불가침의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언약의 엄숙함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원수 같았던 라반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 함께 '떡을 먹으며' 밤을 지냅니다. 죽일 듯이 싸우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화목의 공동체로 회복된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초는 바로 '예배'와 '성찬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제사)가 바로 서자, 깨어졌던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만이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인간적인 대화나 타협으로만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원수 같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떡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얽혀 있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미는 피스메이커(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1.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2.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3. 화해가 필요한 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중 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 이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2.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3. 다음 세대가 복을 위에 굳게 서도록
4.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5. 한국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에 개입하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손 내밀게 하시고, 예배와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